

## 결핵치료에 어린애의 오줌을?

신좌섭(의사, 한국의학사)

### 결핵의 기원과 명칭

결핵은 고대로부터 널리 존재해 온 질병으로서 기원전 4천 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탈리아 출토 유골의 포트 병(Pott's disease, 척추 카리에스:spinal caries)이 현재로서는 결핵의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증거이다(1987년 보고). 이보다는 후기의 것이지만 동양에서도 전한시대(前漢: B.C. 206~A.D. 7)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미이라의 폐에서 뚜렷한 결핵 반흔이 발견된 바 있다.

결핵은 지역이나 인종별로 차이가 있다. 유태인의 경우 고대부터 밀집된 도시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일찍이 결핵이 풍토병으로 정착되어 비교적 저항력이 큰 편이다. 반면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나 뉴질랜드의 마오리 족은 최근까지 결핵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지역에 결핵이 전파되었을 때 다른 급성전염병 만큼 대유행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에 결핵이 나타난

것은 대략 삼국시대 이전일 것이다.

실제 우리 나라 문헌상 결핵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타난다. 삼국유사 권 제2 기이(紀異) 제2를 보면, “순화 2년(성종 10년, 991)에 김해부(金海府) 전량사(田量使) 중대부 조문선(趙文善)이 수로왕릉에 속한 전결(田結)의 반을 역정(役丁)에게 나누어 줄 것을 거듭 진언하여 이 일을 거의 마치자 매우 노권(勞倦)하여 잠이 들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 ‘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 목을 베어

우리 나라 문헌상 결핵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죽은 자의 저주에서 병인을 찾고 있는 내용으로 나온다

죽일 터이다’고 한 즉 문득 깨어나 질책하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주하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다. 죽은 자의 저주에서 병인을 찾고 있는 이 일화에서 ‘노권질체’는 결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이라는 질병 개념은 근대의학의 국소 병리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며, 원래 한의학에서 말하

던 결핵(結核)과는 개념이 다르다. 한의학의 결핵은 단지 '과일 씨와 같이 작은 명울이 하나 생기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담(痰)든다'고 할 때와 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혹은 객관적으로 촉진되는 단일결절을 뜻한다. 결핵협회가 펴낸 "한국결핵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결핵이라는 용어가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후이다.

### 결핵의 병인과 증상

우리 의서 중에서 결핵을 최초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세종 때 편찬된 "향약집성방 권 16"의 "노채문"이다. 여기서 노채의 원인은 '기체가 허약하거나 심신을 고되게 하여 상하거나 풍한서습(風寒暑濕)에 외감하거나, 이에 의해 한사가 몸에 들어왔을 때 보양(保養)을 그르치거나, 과도한 방사(房事), 상한 음식에 있다'고 하였다.

노채의 증상은 '살이 마르고 피모(皮毛)가 건조해지며 열과 오한이 일고 잠자리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백색의 탁한 오줌이 나오고 뱃속에 종괴가 생기며 목뒤에 모이

거나 흩어진 명울이 맺히고 피고름 섞인 가래기침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백색의 탁한 오줌이나 뱃속의 종괴는 신장 및 내장의 결핵을 뜻하고 목뒤에 모이거나 흩어지는 명울은 경부임파선 결핵, 즉 나력(연주창)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력은 영국의 에드워드 왕(1035~1066)이 환부에 손을 대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금화 하나를 하사함으로써 고쳤다고 하는 소위 왕자병(King's Evil)이다. 이 행위는 의지할 곳 없는 빈민들의 신앙심을 유도함으로써 영국 왕권의 신성성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외과심법요결(外科心法要訣)에 실려있는 나력의 여러 가

지 형태를 뒷장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나력의 각 형태는 결핵이 단계별로 침범하는 경부 임파선의 위치와 관계된다.

### 전염 경로와 노채증

"동의보감"에서는 '집을 통해 옮는 것(屋傳), 옷으로 옮는 것(服傳), 음식으로 옮는 것(食傳)이 있다'고 하여 그 전염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이라는 질병 개념은 근대의학의 국소 병리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며, 원래 한의학에서 말하던 결핵과는 개념이 다르다

少陽經癰疽圖



太陽經癰疽圖



(상·좌)소양경나려도(상·우) 태양경습나려도  
(하·좌) 마도나려도(하·우) 중대나려도

馬刀淵癰疽圖



重臺癰疽圖



또한 결핵을 옮기는 것에는 시체나 귀신 이외에도 충이 있어, 노채는 '노채충이 심장과 폐 사이를 물어 발생한다'고도 하였다. 여기서 충(蟲)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균이나 기생충이 아니라 인체의 일부로서 체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적 병인이다.

서양의 의학자들은 도가(道家) 의학자들이 결핵의 원인을 '충'에서 구한 것에 주목하여 '서양의 결핵균 발견을 앞지른 견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회충과 같이 외부에서 침입한 벌레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채충이 "동의보감"의 내경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병이 들면  
산림 속에 들어가  
조용한 방에 마음을  
안정하고 앉아서  
이를 악다물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성생활을 하지 말고  
양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 결핵의 치료와 예방

"동의보감"에 따르면 노채충을 없애는 데에는 태을명월단 등을, 몸을 보(補)하는 데에는 경옥고 등을 처방하였으며 정양(靜養)도 중시하여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 병이 들면 산림 속에 들어가 조용한 방에 마음을 안정하고 앉아서 이를 악다물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성

생활을 하지 말고 양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간요법으로는 '춘정이 아직 발하지 않은 어린이의 오줌'이나 '초산(初産)한 여자의 포의(胞衣)를 달인 물', '사람의 태반과 개의 태반을 섞어 까맣게 태운 것', '갓 부화한 참새새끼', '노루, 사슴, 소의 신선한 생피' 등이 사용되었다.

이 같은 민간요법은 '생명력의 상징물'을 섭취하는 행위로도 해석되지만 그 중의 일부는 체내 단백질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결핵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의 방책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 월경이 시작되면서 체내대사에 변화가 와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며, 이때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핵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한편 부부간의 살생을 조장하는 듯한 '심장이나 간을 취하여 먹는다'는 민간 처방의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이것은 멸문(滅門)의 악질에 처하여 생존을 위해 가족간의 정을 끊으라는 섬뜩하지만 신중한 경계가 아니었을까? 卍